

취약국가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적 접근: 뉴딜의 경험과 과제

권혁주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목차-

I. 서론

II. 취약국가 개념과 이론적 논의

III. 취약국가의 발전을 위한 뉴딜과 정책목표, 수행방식

IV. 뉴딜 시범사업의 이행 및 평가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등 사회·경제발전 노력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을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

⇒ 가장 시급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 방향 제시

- 취약국가: 취약국가는 갈등과 분쟁과 같은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국가의 체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실질적으로 와해되어 있는 상태의 국가들을 의미

- 9·11 테러 등 국제사회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갈등의 해결과 공공서비스 역량 강화가 시급

- 취약국가 개발협력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 OECD의 '평화국축과 국가건설을 위한 국제대화체(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IDPS)'

⇒ '**취약국가에 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대안(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 New Deal)**' 합의

II. 취약국가 개념과 이론적 논의

취약국가에 대한 학술적 정의

- Bertoli & Ticci(2012): 취약국가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제시
 - ① 결과의 측면: 다양한 성과지표들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 개발의 효과성이 낮은 국가들을 취약국가로 분류함으로써 결과의 시각에서 취약국가를 정의
 - ② 원인의 측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관점으로, 취약성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취약국가를 정의

- 권혁주 외 (2011): 두 가지 관점의 통합
- ✓ 취약국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국가로서 정치적 측면에서 권위와 정당성의 부족,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능력의 부족, 안전의 측면에서 치안과 안보의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가

취약성 기준별
취약국 순위

	정치(P)	국가행정(G)	안전(S)
1	아프가니스탄	코모로	이라크
2	이라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3	수단	지부티	아프가니스탄
4	소말리아	콩고(DRC)	수단
5	콩고(DRC)	수단	파키스탄
6	아이티	시에라리온	차드
7	네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콩고(DRC)
8	부룬디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9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0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부룬디	짐바브웨
11	미얀마	아이티	미얀마
12	라이베리아	차드	부룬디
13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예멘
14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15	나이지리아	토고	케냐
16	차드	예멘	코트디부아르
17	앙골라	기니비사우	아이티
18	파키스탄	기니	캄보디아
19	토고	아프가니스탄	말리
20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우간다

II. 취약국가 개념과 이론적 논의

취약국가 상황에 맞는 정책 접근의 필요성

- 취약국가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 접근: OECD-DAC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개입원칙' (2007) 등
-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통한 범국가적 접근(whole-of-government)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담(2008) 논의 결과 취약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쟁 및 취약성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AF)'와 취약국가의 국제적 그룹인 g7+가 결성됨
- OECD DAC의 INCAF와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협의체(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DPS)가 구성됨
- IDPS의 취약국가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의 목표 (PSGs) ⇨ 원인 측면에서 취약국가의 미약한 개발 성과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목표의 형식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5개의 평화구축 및 국가건설 목표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Goals, PSGs)
1	정당한 정치 (Legitimate Politics)
2	안보 (Security)
3	정의 (Justice)
4	경제적 토대 (Economic Foundations)
5	조세 수입 및 서비스 (Revenues and Services)

III. 취약국가의 발전을 위한 뉴딜과 정책목표, 수행방식

뉴딜의 의의

- IDPS 제2차 회의에서 만들어진 몬로비아 로드맵 ⇒ 제4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담 (HLF-4)에서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짐
 -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뉴딜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① 취약국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개발협력을 제시 → 취약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원
 - ② 취약국가에서 국내의 협력 대상자를 명확히 함
 - ✓ 분쟁 · 갈등 예방 및 방지에 우선순위 부여
 - ✓ 범정부적 접근 원칙, "do no harm" 원칙 강조
 - ③ 취약국가 분류와 관련한 외교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함
 - ✓ g7+ 국가들이 스스로를 취약국가로 인정, 적극적으로 협력

III. 취약국가의 발전을 위한 뉴딜과 정책목표, 수행방식

뉴딜에서의 취약국 개입 방식 및 원칙

- IDPS 제4차 회의 (2013): 평화와 국가체제 구축을 위한 목표 설정 (세부 항목 및 지표)
 - 취약국가 개발 관련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위한 집행방식과 집행원칙이 제시됨

	FOCUS 뉴딜의 취약국 개입 방식	TRUST 뉴딜의 취약국 개입 원칙
1	취약성 평가 (Fragility assessment)	투명성 (Transparency)
2	하나의 비전 및 하나의 계획 (One vision, One plan)	위험 공유 (Risk Sharing)
3	이행협약 (Compact)	취약국의 시스템 사용 및 강화 (Use and Strengthen Country Systems)
4	모니터링에 PSGs를 활용 (Use PSGs to Monitor)	역량 강화 (Strengthen Capacities)
5	정치적 대화 및 리더십 지원 (Support political debate and leadership)	시의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원조 (Timely and Predictable Aid)

IV. 뉴딜 시범사업의 이행 및 평가

- 뉴딜 시범사업 중 가장 통합적 접근에 근접한 사례: **시에라리온**
 - 시범사업을 통해 PSG 지표를 구체화, 공여국과 함께 진척사항을 모니터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수립 (UNDP 2015)
- 시에라리온의 뉴딜 이행
 - FOCUS에 따른 취약성 평가 → PSG 지표개발 → 2013 “Agenda for Prosperity” 통합
 - ✓ One Vision, One Plan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중간 소득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국가계획
 - 2014 영국과 상호책임성 협약 (Mutual Accountability: MAF) 체결
 - ✓ 목적: 사업 수행 시 서로에게 진척사항 설명 및 공유
 - ✓ 내용: 사용되는 원조수단 및 공여국의 자원배분 방식 공유

IV. 뉴딜 시범사업의 이행 및 평가

- 뉴딜 시범사업 중 가장 통합적 접근에 근접한 사례: **시에라리온**
 - 시범사업을 통해 PSG 지표를 구체화, 공여국(영국)과 함께 진척사항을 모니터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수립 (UNDP 2015)
 - 시에라리온의 뉴딜 평가 (과정)
 - 객관적 평가는 아직 이르나 TRUST 관점에서 과정평가 가능
 - ✓ 투명성: 인터넷 페이지를 통한 진행사항 공개, 그러나 정보와 운영이 불충분
 - ✓ 위험 공유: 취약국가를 위한 영국-세계은행 공동기금 → 위험공유 긍정적
 - ✓ 원조 예측가능성: INCAF 등의 신속한 인도주의적 대응 기제 존재
- ※ 핵심: 재정지원 및 이를 통한 국가 행정체제의 효과성에 기여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뉴딜은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정치·행정·안보 측면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에 기반한 사업
 - 취약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구축과 국가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며, 취약국가-공여국 간의 파트너십과 상호책임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짐
 - 시에라리온의 뉴딜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중장기적 성과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
- 한국의 정책적 대안
 - 향후 취약국가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뉴딜 등 정치적, 행정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재정적 역량이 필수적
 - 아직 경험이 부족한 한국은 취약국가의 주요 협력국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이미 맺어진 파트너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 정책수행이 관건

